

근대 통신학교의 성립과 국어교육

박형준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의전담교수

* 이 논문은 2012년 12월 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논문 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초고를 대폭 수정한 글이다.

- I. 국어교육사의 이면과 연구 방향의 전회
- II. 통신학교 '조선통신중학관'과 통신교육
- III. 통신교재 『중학강의록』과 국어교육
- IV. 근대 통신학교 국어교육의 의미와 향후 과제

I. 국어교육사의 이면과 연구 방향의 전회

국어교육의 미래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 국어교육학이 대학의 학문제도 속에서 온전히 정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국어교육학이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서 '교과(教科)'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그 이유는 국어 교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학문적 성취는 물론이고,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이해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국어교육의 이론적 틀을 창안하고 실제 교육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토대 연구와 경험 조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어교육 연구는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문헌학 등과 조우하며, 국어교육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어교육 연구의 제도 내적 접근성 - 근대적 형식의 국어교육이 제도화의 길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부득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 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 '제도권 내부의 초·중등교육'에 주로 관심(연구)이 집중되어, 국어교육 제도의 주변부나 바깥을 응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양산하기도 하였다.

국어교육의 오랜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모국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교육은 학교제도 속에서만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니다. 멀리는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져 온 야학 운동과 해방 직후부터 시작된 문맹퇴치 운동(한글강습회 등)이 그러하고, 가까이로는 이주민 한국어교육 활동이나 사설 한글교습 활동 등이 그러하다. 시의성 있는 국어교육 연구, 다시 말해 현재의 국어교육 현상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처방과 함께, 과거 속에서 현재를 이해하고 국어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일 역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어교육의 미래를 향한 여정이 과거에 대한 성찰과 철저한 반성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¹ 또, 국어교육 자료를 총합하는 통사적 기술의 관점을 넘어 특정 시기와 영역, 그리고 주제론으로까지 연구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일이다.² 예를 들어, 『미래를 여는 국어교육사』, 혹은 ‘국어교육미래열기’³라는 표제와 공동저자명이 시사하고 있듯이, 국어교육의 미래란 바로 과거에 대한 반성과 현재의 성찰에서 출발한다.

이 글의 문제 인식 역시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 논문에서 특히 관심을

-
- 1 이웅백(1975), 『국어교육사연구』, 신구문화사; 박봉배(1997), 『국어교육전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윤여탁 외(2006), 『국어교육 100년』 1·2, 서울대출판부; 민현식 외(2007), 『미래를 여는 국어교육사』 1·2, 서울대출판부 등을 참조할 것.
 - 2 최현섭(1989), 『한국 소설교육사 연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정재찬(1996), 「현대시 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김선배(1996), 『시조문학교육의 통사적 연구』, 박이정; 우한용(2008), 『한국 근대문학교육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박영기(2009), 『한국 근대 아동문학 교육사』, 한국문화사; 이진호(2009), 『국어 음운 교육 변천사』, 박이정; 임성규(2009), 「미군정기 초등학교 국어교재 수록 아동문학 제재 연구」, 『국어교육연구』 44, 국어교육학회; 민재원·김창원(2011), 「한국 현대시교육의 형성 과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박형준(2012a), 「한국 문학교육의 제도화 과정 연구-제1차 교육과정 이전 시기 문학 교재의 변모를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논문; 박형준(2012b), 「향토학교와 문학교육의 정치성」, 『인문학논총』 30, 경성대 인문학연구소.
 - 3 국어교육미래열기 편(2012),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두고 있는 대상은 ‘정식 학교’ 제도 속에서는 공식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연구의 대상도 되지 못한 국어교육의 역사적 잔여물-이 글에서는 조선통신중학관에서 편찬하고 발행한 『中學講義錄』이 그것이다-⁴ 혹은 학교 제도교육의 주변에서 존재하였던 ‘통신학교 국어교육’이다. 통신교육,⁵ 다시 말해 통신학교 국어교육은 기본적인 문자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 문식성 교육(초등교육)은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형편)으로 진학, 취업 등에 필요한 고등 문식성을 습득하지 못한 이들에게 행해지는 국어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국어교육의 제도 내적 맥락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한 제도 구성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조차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부분이다.

통신교육(혹은 원격교육)에 대한 교육학적 관심은, 대부분 당대 ‘매체의 변화’와 ‘방법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듯하다. 그래서 원격교육의 역사를 거슬러가도, 1920년대 초부터 시작된 통신학교 국어교육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1921년 조선통신중학관을 중심으로 시작된 통신학교 국어교육은 해방공간과 1950~60년대를 거쳐 하나의 교육제도로 구축된다. 이 과정에 대한 조사와 기술은 그래서 긴 호흡을 필요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거름못으로 삼아, 근대 통신학교의 성립 과정과 국어교육의 자리를 먼저 살피고자 한다. 이는 1920년대 초기 조선통신중학관에서 발행한 통신교재 『중학강의록』을 발굴하여 실증함으로써, ‘통신학교 국어교육’의 역사적 맥락을 복원하고 사회문화적 함의를 해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4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담고 있는 연구로는 유인본 국어교과서를 발굴하고 국어교육사적 함의를 논한 박형준(2009), 「유인본 국어교과서의 발견과 해석」, 『국어교육연구』 45, 국어교육학회를 참조할 것.

5 이 논문에서는 ‘통신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쇄 매체의 원격교육을 ‘통신교육’이라고 보았다.

II. 통신학교 ‘조선통신중학관’과 통신교육

사전적 의미의 ‘통신교육(通信敎育, correspondence education)’은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교육 활동”⁶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즉,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제도(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방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경제적 조건, 지리적 여건, 연령, 신체, 가정사정 등으로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일정한 시설, 설비 밑에서 교사로 부터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통신의 매체를 사용하여 자율학습(自律學習)을 하게 하는 교육 방법”⁷으로 정리된다. 초기의 통신교육이 사회·경제적인 목적 아래 출발하였다는 사실, 즉 경제적 효용 창출을 위해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교육의 내용을 통신으로 전수하는 데 있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왜냐하면 이는 학습자의 기본 소양 함양이라는 거시적인 교육적 목적과 함께 ‘기술’⁸ 전수나 ‘광산 사고 방지’ 목적, 그리고 고등교육의 기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통신교육은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교육 활동”인데, “우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따위를 이용하여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19세기 중엽 산업화와 도시화로 교육을 받은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고 인쇄술과 우편 제도가 개선되면서 발전”하였다고 정리된다.

7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5)에 따르면, “오늘날의 통신교육은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적·경제적 조건 하에서 출현하였다. 1856년 독일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던 토우세인(C. Toussaint)이 최초로 통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873년에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대학 확장 운동의 일환으로 통신교육을 실시하였고, 1886년에는 일본의 와세다 대학이 영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정치학 강의록」이라는 교재를 사용한 통신교육을 시작하였다. 1891년에는 미국의 포스터(T. Foster)에 의하여 광산 사고 방지를 위한 통신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통신교육은 오늘날 널리 보급되어 그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8 통신교육이 보편적인 기술교육으로 확장되는 사례를 하나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강의록의 대상은 국민학교 졸업정도 이상의 일반 성인 남녀, 무선종사자, 무선 아마추어(취미인), 특히 과학반의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알맞게 꾸며졌으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TV·라디오 기술의 대중화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중략...) 이 강의록

회 확대(“케임브리지 대학에 대학 확장 운동의 일환으로 통신교육을 실시”)라는 특정 목적에 맞게끔 통신교육이 실시되고 확장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통신교육’은 일종의 원격교육(遠隔敎育, distance education)의 성격을 지닌다. 원격교육은 “전통적 교육방식에서의 출석에 의한 대면학습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시간적·공간적 원격성을 전제로 인쇄물이나 방송 통신 및 컴퓨터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 공학 매체들을 매개로 하여 행”해지는 교육 방식이다. 시·공간적인 제약이 적은 원격교육은 그래서 “교육기회의 확대 제공과 교육적 효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특히 커다란 강점을 지니는 것”(서울대 교육연구소, 1995)으로 평가된다. 통신학교 국어교육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는 것도 바로 이 ‘교육기회의 확대’에 있다. 교육기회의 확대는 사회적 ‘성공’, 다시 말해 ‘입신의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해방 직후, 국어(조선어) 문식성 환경이 거의 파탄난 상황에서 국어교육은 학교만이 아니라, 한글강습회나 성인교육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것은 식민지 시기 야학 운동이나 조선어강습회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허나,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의 언어교육이든 그것이 언어 사용 주체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 다시 말해 기초 문식성을 습득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사회 활동에 필요한 고등 문식성(혹은 사회적 문식성)을 확장하는 지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통신학교 국어교육’이 단기 조선어강습회나 야학 등과 다른 자리에 놓일 수 있다면, 이는 통신교육이 기초 문식성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학습자 개인 사정과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학업을 수행하지 못한 조선인 학습자들을 위한 입신 회로 역할을 하였다는 데 있다.

의 수강생은 연령, 남녀, 직업 구별없이 여러 방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들 다같이 우리나라 TV·라디오 기술계의 보급과 향상을 위해서, 보다 많은 성원과 협력이 있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김기호(1963), 『머리말』, 『TV·라디오 通信講義錄』 1, 한국TV기술학원출판부.

다시 말해, 통신교육은 ‘중등교육 소외자’를 위해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준-제도적 장치’였던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통신학교 국어교육’은 학습자의 기초 문식성을 심화시키는 데서 출발하여, 진학이나 취업 등에 필요한 고등 문식성을 확장하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해방 직후의 통신학교 국어교육이 ‘글 깨치기’ 수준의 기초 문식성 전과를 피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사회적 문식성 확대로 그 자리를 넓혀가고 있던 것과도 동일한 궤에 놓이는 맥락이라고 하겠다. 아래에서 인용한 기사문을 보면, 통신교육은 학습자의 기본적인 소양 확대와 함께, 학습자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준비를 위해서 실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文部省에서는 現在 各處에서 發行되는 中學講義錄이 內容이 十年이 一日과 女
 子야 改善되지 아니하고 上級學校 入學에도 下等資格을 不得함에 監하여 今回
 權威있는 中學講義錄을 發行할 計劃中이다. 友中學講義錄은 內容도 豊富하고
 完全하여 專門의 教師를 置하고 質問應答도 自由로 하며 또 每年 中學校 在學生
 同様の 試驗을 行하여 合格卒業者에는 中學校 卒業과 同様の 資格을 附與하려
 하더라.⁹

이른 시기부터 ‘강의록’(사전에서 제시한 『정치학 강의록』과 위의 인용한 기사문에서 제시한 『友中學講義錄』)이라는 형식을 통해 통신교육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미 1920년대 후반 ‘중학강의록’으로 대표되는 인쇄 유형의 통신교육이 보편적으로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통신교재는 와세다 대학의 7대 통신 강의록이었다(윤해동 외, 2006: 32). 특히 “每年 中學校 在學生 同様の 試驗을 行하여 合格卒業者에는 中學校 卒業과 同様の 資格을 附與”한다고 해서 상급학교 입학에 위한 기본 자격 시

9 『동아일보』, 1929.11.12.

험을 준비하는 방법과 과정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의 통신교육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서구 근대 지식의 유입과 제도적 확산성을 고려하며 신문 매체 담론을 분석했을 때, 우리의 통신교육은 1920년대 전후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증례는 1921년 조선통신중학관과 조선교육학회가 함께 발간한 통신교재 『中學講義錄』이다.¹⁰

심선옥은 ‘조선통신중학관’을 “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중학교과정의 독학·통신강의를 주관했던 곳”으로 설명하며, “3·1운동 이후 각 학교 입학지원자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그 늘어난 수요만큼 교육기관의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학 의지는 있으나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과 “학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월정액을 내고 회원이 되면 매달 한 권씩 집으로 통신강의 교재를 우송해주는 제도”(심선옥, 1997: 82-83)를 시행한 통신학교라고 요약하였다. 조선통신중학관의 전체적인 성격을 잘 정리하였으나, 이는 통신교육의 매체가 되는 ‘교재’의 출판문화적 맥락만을 소략하게 기술한 것이라, 매체를 통해 이를 실증하고 그 의미를 보탬 필요가 있다. 다소 길지만 「通信教育의 嚆矢, 朝鮮通信中學館과 朝鮮教育會의 美舉」를 참조할 수 있다.

이제 通信教育의 論舉하면, (一) 空間的 制限이 無 함이니 學校教育 方法에 依하면 修學者는 必히 一定한 處所에 集合함을 必要하는 關係로 學校의 收容力이 不

10 『中學講義錄』 1호의 ‘조선통신중학관 규칙’을 보면, 조선통신중학관은 “중등교육의 普及”을 위하여 “通信教授를 目的”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本館의 目的을 達 하기 爲하야 每月 二回(一日, 十五日) 中學講義錄을 發行하야 滿 二年에 卒業케” 할 예정임을 제시하고 있다. 직원은 관장 1명, 학감 2명, 강사 약간명, 이사 약간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선어 교과 담당 강사는 장지영이 맡고 있다. 하지만 강사(25명-사립보성법률학교 등의 강사, 교수, 교사)가 실제 사무나 강의를 담당한다기보다는 강의록의 내용을 구성하고 학사 업무를 자문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조선통신중학관 취지」, 『중학강의록』 1호, 조선통신중학관, 1921.

足한 境遇에는 就學의 困難이 有하며 비록 學校의 收容力이 有足하다할 지라도 生活上 各樣 事情에 依하여 抽身하기 困難한 者에게 對하여는 또한 就學의 機會가 되지 못하되 通信教育에 在하여는 此等 不便이 無하여 何地方에 在함과 何事業에 從함을 勿論하고 모든 者에게 對하여 知識에 接近할 機會를 提供하며, (二) 時間的 制限이 無함이니 學校教育 方法에 依하면 初中等 程度에 在하여는 年齡의 制限이 有할 뿐 아니라 一定한 時間에 上學하는 關係로 定齡을 超過한 者는 就學하기 困難하며 時間의 餘裕가 無한 者 또한 修學의 志를 達치 못하되 通信教育에 在하여는 年齡의 如何를 不問하며 時間의 拘束이 無함으로 句히 教育에 志하는 者는 그 모든 者에 對하여 知識을 供給하며, (三) 學費의 低廉이니 學校教育에 依하면 一定한 處所에 集合하며 一定한 時間에 上學하는 關係로 그 經費의 負擔能力이 無한 者는 教育에 對한 志向이 비록 懇切하다할지라도 能치 못하는 不便이 有하되 通信教育에 在하여는 그 經費가 少할 뿐 아니라 職業에 從事하는 一面에 能히 知識을 修할 수 있스니 次 三大 特徵은 實로 通信教育으로 하여금 民衆文化 增進함에 莫大한 貢獻을 行하게 하는 所以로다.¹¹⁾

1921년 ‘조선통신중학관’의 출현은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조선통신중학관은 일본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교육’을 조선에서 가능하게 한 일련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은 조선통신중학관의 설립을 “통신교육의 효시”로 기술하며 평가하고 있다. 통신교육은 기존의 학교교육과 달리 세 가지 측면에서 효용성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공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 둘째, 시간의 제약이 덜하다는 것, 셋째, 비용의 제한을 최소화해서 학업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미 야학 등과 같은 사회계몽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지만, 통신교육은 직업과 생계 문제로 특정 시간과 공간을 할애할 수 없는 학습자들에게 또 다른 교육적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야학과는 구분할 수 있다.

중학과정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통신교재 『중학강의록』의 독자)들의 반

11 『동아일보』, 1921.7.26.

응은 뜨거웠다. 그것은 “학교에 통학코자 하오나 학비가 업서서 이리저리로 방황하”고 있는데, “조선교육학회에서와 조선통신중학관에서 발행한다는 중학강의록은 십 월 일일에는 귀어히 된다더니 엇지한 연고인지 아모 소식도 업스니 참 갑갑”¹²하다고 하소연하는 기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동아일보 「때의 소리」란을 비러 몇마디 무르오니 곳 가르켜” 달라는 하소연은 1921년 7월 23일(『동아일보』)에 이미 ‘중학강의록’의 발간 예정 광고 및 조선통신중학관의 소개가 이루어졌으나,¹³ 실제 발행이 1921년 11월 17일로 늦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통신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았다는 증례로 읽어도 좋으며, 조선통신중학관의 『중학강의록』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준 사회계몽 운동의 성격을 지녔다고 보아도 좋겠다.

통신교육은 중등과정을 ‘교과’의 목표와 내용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일반 조선어강습회나 야학보다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았다. 그것은 『중학강의록』이라는 인쇄 매체(우편 방식)를 통해 ‘통신교육’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조선통신중학관의 취지문(“中學講義錄의 發行 卽 中學教育의 通信教授를 決心”)에서 알 수 있듯이,¹⁴ 조선통신중학관의 통신교육은 『중학강의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통신학교 국어교육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신교재 『중학강의록』을 실증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III. 통신교재 『중학강의록』과 국어교육

현재와 같이 TV·라디오, 혹은 인터넷망으로 통신교육을 실시할 수 없

12 『동아일보』, 1921.10.15.

13 『동아일보』, 1921.7.23.

14 「조선통신중학관 취지」, 『중학강의록』 1호, 조선통신중학관, 1921.

있기에 -이것은 해방 직후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은데 -, 이 시기에는 교재 '강의록'이 곧 우편이자 전파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중등과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 내용은 '중학강의록'에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도 좋으며, 강의록 공부의 '질의와 응답'은 통신학교와의 서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50년대 발행된 『中學·高等 通信教育 入學 案内』를 통해서 더욱 잘 확인할 수 있다. 이 안내문에서는 “공부하다 모를 곳이 있으면 몇 번이든지 本校에 편지로 물어본다. 편지를 쓰는 것부터가 하나의 공부가 된다.”¹⁵고 하여서, 통신교육이 '강의록' 중심의 자학·자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조선통신중학관에서 발행한 『중학강의록』에도 “回答を 要하는 通信에는 返信料를 添付할 事”¹⁶라고 하여, 우편 발송과 질의 응답에 관한 항목을 “學員注意” 사항으로 부기하고 있다. 근대 이후 '중학강의록'을 통한 통신교육은 '독학자(獨學者)'¹⁷들을 제도 중등교육과 매개시키는 접지 역할을 하였으며,¹⁸ 이를 통해 교육 기회 불균등을 해소하고, 교육 소외자의 사회 진출(진학과 취업 등) 기회를 확장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근·현대 통신교육의 효시 역할을 한 조선통신중학관의 『중학강의록』 창간호는 1921년(대정10년) 11월 17일 발행(인쇄: 한성도서주식회사)되었으나, 몇 호까지 발행되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조선통신중학관에서 발행한 강의록의 정확한 명칭은 『중학강의록』이며 1921년 1, 2호가 나왔고 1922

15 중앙통신중고등학교 편찬(1957), 『中學·高等 通信教育 入學 案内』, 중앙통신중고등학교, 9쪽.

16 「學員注意」, 『중학강의록』 20호, 조선통신중학관, 1922.

17 해방 직후 사회적 문식성의 확대가 임신 출세로 이어진 예는 다음과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일관된 정성과 노력으로 二十세 의 소년 이 두 사람 씩 이나 한꺼번에 의사 시험을 무난히 파스 하야 이때 의 젊은 독학 청년 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는 반가운 소식 이 있다”고 하였다. 「獨學으로 醫試 合格」, 『동아일보』, 1946.12.18.

18 윤해동 외(2006)에서는 중학강의록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보완재”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년 3호~20호가 발간되었다.¹⁹ 현재 1923년 판본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第一回 講義錄 第廿一號도 今般에 비로서 發行”²⁰되었다는 신문 광고를 통해서 볼 때, 창간호에서 21호(1921.11.~1923.5.)까지가 제1회 이수 과정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확인이 가능하다. 조선통신중학관은 입학 학생이 “滿二年에 卒業”(「조선통신중학관 규칙」, 『중학강의록』 제1호)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약 2년분 강의록에 해당하는 1호부터 21호까지를 제1회 과정(1921.11.~1923.5.)의 내용으로 확정할 수 있겠다.

조선통신중학관(『중학강의록』, 1호~20호)의 교과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은 ‘修身, 國語, 朝鮮語典, 漢文, 英語, 歷史(日本史, 韓國史), 地理, 算術, 生理, 動物, 獨習法’ 등과 같이 다양하다. “조선통신중학관 강의록 교과과정표”²¹에는 1회분 강의록의 학기(전체 4학기이며, 1학기에 6개월 과정이다)와 교과목, 교육 내용 등이 간략히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 『중학강의록』의 수록 교과목 내용을 비교해 보더라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심선옥은 선행 연구에서 1924년에 발행된 강의록의 교과목이 “국어, 생물, 영어, 물리, 세계지리 강의안”이라고 제시하였는데 심선옥, 1997: 82), 이는 실제 『중학강의록』 원본을

19 『중학강의록』 1호는 대정10년(1921년) 11월 16일에 인쇄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7일에 발행되었다. 학감 박광희(朴廣熙)가 편집과 발행, 그리고 인쇄를 맡았으며 교제 인쇄는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하고 발행은 조선통신중학관에서 하였다. 심선옥은 앞의 논문에서 1924년 판 『조선중학강의록』을 독립기념관 전시 내용으로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실물을 확인한 것은 아닌 듯하다. 현재 필자가 직접 확인한 조선통신중학관의 『중학강의록』은 1호부터 20호까지이다. 21호는 실물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1923년 신문 기사를 통해 존재 여부는 확인이 가능하다. 향후 1923년 이후의 자료도 모두 발굴되어 통신학교 강의록(국어교육)의 온전한 모습이 복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20 『동아일보』, 1923.5.7.

21 『중학강의록』 1호는 취지문과 교과과정표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교과과정에는 교과목 명칭과 학기(총 4학기)별 학습 내용 정도만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 ‘교수요목’의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중학강의록』 1호의 원문에서 제시한 ‘교과과정’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조선통신중학관 강의록 교과과정표」, 『중학강의록』 1호, 조선통신중학관, 1921, p. 6.

확인한 결과가 아니므로 교과목 전체를 정리한 것이 아니다. 물론, 판본 비교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굳이 1924년에 발행된 강의록까지 확인하지 않더라도 『중학강의록』의 교과목은 ‘국어, 생물, 영어, 물리, 세계지리’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종합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이 가능하다.

제1회 이수 과정에 해당하는 『중학강의록』 1호~20호(1921~1922)의 교과 구성 및 목차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923년에 발행된 21호는 필자가 실물을 확인하지 못해 제외하였다).

호수	발간 일자	교과 구성(목차)	조선어과 특이 내용
(제1회) 1호	1921. 11.17.	수신, 국어, 조선어전, 한문, 영어, 역사(일본사, 조선사), 지리, 산술, 생리, 동물, 식물, 독습법	조선어전강의 총론(장지영)
(제1회) 제2호	1921. 12.30.	삼대문화의 원류, 수신, 국어, 조선어급한문(가.조선어, 나.한문), 영어, 역사(가. 일본지부, 나.조선지부, 다. 동양역사), 세계지리, 산술, 생리, 동물, 식물	조선어 및 한문 교과 통합 (2호-12호)
(제1회) 3호	1922. 1.25.	수신, 국어, 조선어급한문(가.조선어, 나.한문), 영어, 역사(가. 일본지부, 나.조선지부, 다. 동양역사), 세계지리, 산술, 생리, 동물, 식물	
(제1회) 4호	1922. 3.6.	수신, 국어, 조선어급한문(가.조선어, 나.한문), 영어, 역사(가. 일본역사, 나.동양역사), 지리(가.일본지리, 나.세계지리), 산술, 생리, 동물, 식물	*조선역사 과목 폐지 (이하 20호까지)
(제1회) 5호	1922. 3.31.	수신, 국어, 조선어급한문(가.조선어, 나.한문), 영어, 역사(가. 일본역사, 나.동양역사), 지리(가.일본지리, 나.세계지리), 산술, 생리, 동물, 식물	
(제1회) 6호	1922. 4.28.	수신, 국어, 조선어급한문(가.조선어, 나.한문), 영어, 역사(가. 일본역사, 나.동양역사), 지리(가.일본지리, 나.세계지리), 산술, 생리, 동물, 식물, 각과개론급독수법	
(제1회) 7호	1922. 5.25.	수신, 국어, 조선어급한문(가.조선어, 나.한문), 영어, 역사(가. 일본역사, 나.동양역사), 일본지리, 세계지리, 산술, 생리, 동물, 식물, 각과개론급독수법	
8호	1922. 6.15.	수신, 국어, 조선어급한문(가.조선어, 나.한문), 영어, 역사(가. 일본역사, 나.동양역사), 지리(가.일본지리, 나.세계지리), 산술, 생리, 동물, 식물, 각과개론급독수법	
9호	1922. 6.26.	수신, 국어, 조선어급한문(가.조선어, 나.한문), 영어, 역사(일본역사), 지리(가.일본지리, 나.세계지리), 산술, 생리, 동물, 식물, 각과개론급독수법	

10호	1922. 7.18.	수신, 국어, 조선어급한문(가.조선어, 나.한문), 영어, 역사(일본역사), 지리(가.일본지리, 나.세계지리), 산술, 생리, 동물, 식물, 각과개론급독수법	
11호	1922. 8.05.	수신, 국어, 조선어급한문(가.조선어, 나.한문), 영어, 역사(일본역사), 지리(가.일본지리, 나.세계지리), 산술, 생리, 동물, 식물	
12호	1922. 8.15.	수신, 국어, 조선어급한문(가.조선어, 나.한문), 영어, 동양역사, 지리(가.일본지리, 나.세계지리), 산술, 생리, 동물, 식물	
13호	1922. 9.1.	수신, 국어, 한문, 영어, 지리, 세계지리, 산술, 생리, 동물, 식물, 광물, 물리, 화학	조선어 교과 없음
14호	1922. 9.15.	수신, 국어, 한문, 영어, 지리, 세계지리, 산술, 생리, 동물, 식물, 광물, 물리, 화학	조선어 교과 없음
15호	1922. 10.5.	수신, 국어, 조선어, 한문, 영어, 일본역사, 동양역사, 일본지리, 동양지리, 산술, 생리위생, 동물, 식물, 광물, 물리, 화학	
16호	1922. 10.25.	수신, 국어, 조선어, 한문, 영어, 일본역사, 동양역사, 일본지리, 동양지리, 산술, 생리위생, 동물, 식물, 광물, 물리, 화학	
17호	1922. 11.5.	수신, 국어, 한문, 영어, 동양역사, 일본지리, 세계지리, 산술, 생리, 동물, 식물, 물리, 화학, 과학	조선어 교과 없음
18호	1922. 11.23.	수신, 국어, 한문, 영어, 동양역사, 일본지리, 세계지리, 산술, 생리, 동물, 식물, 물리, 화학, 과학	조선어 교과 없음
19호	1922. .12.5.	수신, 국어, 한문, 영어, 동양역사, 세계지리, 산술, 생리, 동물, 식물, 광물, 물리, 화학	조선어 교과 없음
20호	1922. 12.15.	수신, 국어, 한문, 영어, 동양역사, 세계지리, 산술, 생리, 동물, 식물, 광물, 물리, 화학	조선어 교과 없음

조선통신중학관 『중학강의록』 소재 국어과(조선어 교과)의 교과과정과 내용 구성 맥락을 살펴보자.²²⁾

먼저, “조선통신중학관 강의록 교과과정”에서는 ‘國語’와 ‘朝鮮語’로 교과목이 구분되어 있다. 이미 구교육령(1·2차 조선교육령)에 의한 교과목 구

22 이 장에서는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1920년대 초기 일본어 교육으로 시행되던 ‘국어’는 ‘국어(일본어)’로 병기하며, 근·현대 국어교육의 통사적 맥락에서 ‘국어교육’이라는 용법을 쓸 때는 그냥 ‘국어’라고 표기하였다. 필자는 일제강점 시기의 국어교육을 ‘조선어 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사실 수리’하여 표기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식민지 교과과정의 운영 체계를 내면화한 용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를 준비 중이다.

성과 교과서 편찬 지침이 적용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어가 ‘국어(일본어)’ 교과로 우리말이 ‘조선어’ 교과로 배치·분할되었던 것이다. 특히, 조선어 교과서 개발/검정 방식과 동일한 관점이 『중학강의록』의 ‘교과목’ 설정에도 반영되고 있는 양상은 당시 조선총독부의 교육 통제 속에서 ‘통신학교 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시사한다.²³

이것은 한문 교과와의 관계에서 잘 드러나는데, 당시 중등학교 조선어 교과와 마찬가지로 『중학강의록』에서도 ‘조선어 교과’와 ‘한문 교과’를 통합 교수 과목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문과 조선문의 문자상의 유사성을 매개하는 문자가 한자였다는 점에서 ‘한문’을 조선어과에 묶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허재영, 2011: 60)에 근거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조선어 교과와 한문 교과의 시수를 국어(일본어 교과)와 구분하여 불균등하게 배치하고 실행하기 위한 식민지 교육과정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중학강의록』 2호부터 12호에서 보듯이, 통신교재에서 ‘조선어 급한문’은 기실 ‘조선어 교과’와 ‘한문 교과’가 분리되어 있다. 이는 구교육령 시기에 편찬된 조선어 교과의 중등교과서 『고등조선어급한문독본』의 경우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중학강의록』의 목차와 편성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어급한문’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실제로는 ‘조선어 교과’의 내용/분량 축소가 그리 크지 않다. 독학, 다시 말해 자학·자습으로 이루어지는 ‘통신 국어교육’이다보니 학교 시수(시간)의 물리적 제약(통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이와 같은 구성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둘째, 이 시기 조선어 중등교과서가 ‘국어(일본어)독본’의 내용을 번역해서 수록하거나(허재영, 2009), 일제 식민 정책의 내적 논리를 수용하는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중학강의록』의 ‘조선어 교과’에는 읽

23 실제로 『중학강의록』의 각 책에는 ‘조선총독부 경무국’ 검열인(印)이 찍혀 있다. 당시의 교재 출판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기 제재를 별도로 배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조선어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글을 신지 않고, 오히려 ‘朝鮮語典講義’라고 하여 “이미 알아서 쓰는 朝鮮말”의 “特質”²⁴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둔 내용 구성을 취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호수	조선어 영역 내용 및 학습 순서
1호	조선어전강의 총론, 1. 語典의 뜻, 2. 말과 글, 3. 글의 두 가지, 4. 朝鮮말과 朝鮮글, 제1편 音學 1. 소리(音), 2. 홀소리(母音), 3. 닿소리(子音)
2호	※계속 3. 닿소리(子音)-※계속 4. 음의 單複, 제1장 字編 1. 字의 起源
3호	※계속 제1장 字編 1. 字의 起源
4호	※계속 제1장 字編 1. 字의 起源, 5. 母音과 子音의 合音, 6. 練習
5호	※계속 7. 音調
6호	※계속 8. 子音의 接變, 제2편 字學, 1. ㅅ의 總論
7호	※계속 練習 2. ㅅ의 種類, 1. ㅅ씨(名詞) 練習
8호	※계속
9호	※계속 2. ㅅ씨(形容詞), 練習
10호	※계속 練習
11호	※계속 3. ㅅ씨, 練習
12호	※계속
15호	※계속 練習, 4. ㅅ씨(助詞)
16호	※계속 練習

(※『중학강의록』은 앞 호의 교수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를 ‘※계속’이라고 표기하였다.)

『중학강의록』의 조선어 교과는 장지영이 ‘朝鮮語典講義’를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여 국어(조선어)의 정확한 이해와 발음, 그리고 사용을 위한 연습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원 설정이라고까지 할 만한 내용이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국어(조선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연습이 가능하도록 각 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요한 문법 학습이

24 장지영, 「朝鮮語典講義」, 『중학강의록』 1호, 조선통신중학관, 1921.

끝난 후에는 ‘연습’ 활동을 제시하여 이론의 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조선어 교과와 담당 교사인 장지영이 국어(조선어)교육의 내용과 전달 방식을 체계화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라 하겠다.²⁵

이러한 내용 구성은 우리말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 일상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학적 체계 속에서 심화하고 연구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검열 체계 속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중학강의록』 1호에 수록된 ‘2. 말과 글’의 이해, ‘3. 글의 두 가지 유형(소리글과 그림글)’, ‘4. 朝鮮말과 朝鮮글’ 등의 총론은 향후 2호부터 20호까지 정확한 철자와 발음의 예와 설명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는 조선어 어법에 대한 교수·학습에도 그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字의 起源”과 같은 장(章)에서와 같이 조선어의 뿌리나 특질을 이해하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조선통신중학관 강의록 교과과정표”에는 조선어 교과와 내용이 “讀力, 解釋, 作文”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구현되지는 않았다. 교육내용의 통제가 가능한 읽기 제재를 수록하지 않고, 시비의 여지가 적은 조선어 문법의 이해를 통해 모국어의 가치를 전수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²⁶ 이와 같은 내용 구성 방식은 다소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모국어(조선어)가 ‘국어’의 자리에 들지 못하는 이중언어 상황에 대한 감각이 교재 구성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各科概論及獨習法’ 내용을 설명하는 영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 과의 개론과 독학법을 설명하는 “各科概論及獨習法”의 “中

25 예를 들면 ‘임씨’ 학습 내용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 알(아래: 인용자)에 적은 말에서 임씨를 찾아 내어라” 같은 활동이 그것이다. 『朝鮮語典講義 總論』, 『중학강의록』 7호, 조선통신중학관, 1922, p. 33.

26 이와 같은 고쳐는 『중학강의록』 내 다른 과목의 경우를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朝鮮地誌와 歷史는 當局의 一定한 方針을 違越할 수 업서 最初 廣告한대로 實行치 못하고 現今 公私立 各 高等普通學校에서 가라치는 教科書를 譯述케 되얏습니다.”에서와 같이 ‘제재(내용)’에 대한 통제와 검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廣告』, 『중학강의록』 3호, 조선통신중학관, 1922.

學科 諸學課”에 수신, 국어, 역사, 지리, 수학, 물리학, 화학,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생리위생학, 법제경제, 외국어 등을 포함하면서 ‘조선어’의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 부득이하게 검열에 대비하여 조선어 교과와 내용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내용을 기술(“國語, 外國語學 등은 남의 思想과 感情을 내가 밋고, 나의 思想과 感情을 남에게 전하는 방법을 배호려 함이오”²⁷)하는 문장 사이사이 이중언어에 대한 자의식이 노출되고 있어서 교재 편찬자의 고뇌를 엿볼 수가 있다.

셋째, 신교육령(3차 조선교육령, 1922.2.4.) 공포 이후 13, 14, 17, 18, 19, 20호에서는 아예 조선어 교과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신교육령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조선의 지리나 역사(역사-조선지부) 교과가 아예 『중학강의록』(4호, 1922.3.6.)에서 폐지된 예를 생각한다면, 조선어 교과에 대한 억압은 다소 유예된 조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는 역사나 지리 교과와 달리 조선어 교과는 여전히 다른 교과의 학업이나 실용 생활을 위한 ‘도구교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서, 조선어를 외국어 수의과목으로 배치하더라도 완벽하게 폐지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동아일보』 1923년 10월 광고면에서 “朝鮮文으로써 中學校 全 科目을 說明”한다고 『중학강의록』을 홍보하고 있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강의록 15호, 16호에 적은 분량이나마 조선어 교과와 내용(문법교육)이 다시 반영되었다가 사라지는 것 역시 그런 이유라 짐작된다.

第一章 總則. 第一條 本館은 朝鮮通信中學館이라 稱함. 第二條 本館은 中等教育의 普及을 꾀하기 爲하야 通信教授를 目的함. 第三條 本館의 事務所는 京城 貞洞 一番地 八에 置함. 第四條 本館의 目的을 達하기 爲하야 每月 二回(一日, 十五日) 中等講義錄을 發行하야 滿二年에 卒業케 함. 第五條 本館 講義錄은 朝鮮教育令

27 「各科概論及獨習法」, 『중학강의록』 6호, 조선통신중학관, 1922.

에 準據하야 高等普通學校 規則에 依한 全課程을 會員에게 學習케 함.²⁸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학강의록』은 “朝鮮教育令에 準據”하고 있기 때문에 “高等普通學校 規則에 依한 全課程”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제1회분(1921~23년) 강의록은 일본어를 국어로 상용하게 하는 식민지 교육 정책이 강화되고 있던 시기에 조선인의 학력 및 학업향상을 위해 성립된 준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므로 통신교육 사업이 일본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 의식의 발산으로까지 확장될 수는 없었다. 허나, 통신학교의 설립 취지와 방향이 다소 느슨하더라도 계급적 차이에 근거해 있다는 점—“無産大衆의 理想的 紫榆 學員”이자 “普通學校 卒業生의 唯一한 獨學機關”²⁹—, 또 여러 차례의 폐간과 속간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강의록』 발행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인의 중등교육 입문과 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분명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일본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를 ‘조선어’로 읽고 쓰는 매체 환경에서, “朝鮮教育令에 準據”한 것들(일본 교재 번역물)로 『중학강의록』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문제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통신학교 교재 『중학강의록』의 사용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 내에서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 목적 역시 ‘진학’이나 ‘취업’ 등과 같은 ‘입신’의 과정과 무관하지 않았다. 식민지 시기의 ‘입신(출세)’이라는 과정은 부득이하게도 일본의 교육제도에 대한 수용을 피할 수 없다. 청년의 사회적 진출이 식민지 제도교육의 기반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해방 이후의 통신교육에서 ‘조선어’를 ‘국어’로 향유하고 학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효과를 발휘

28 「조선통신중학관 규칙」, 『중학강의록』 1호, 조선통신중학관, 1921.

29 『동아일보』, 1926.4.24.

한다. 조선어가 도구 언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식민 사회의 논리와 세계 체제(지식)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통신교육은 제도의 주변에 존재하면서 기실 제도를 매개하는 비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 식민지 통신교육의 ‘제도 입문적 경향’을 단순히 ‘출세와 성공 담론(입신·출세주의)’의 유통 회로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통신학교 국어교육은 식민지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기, 교육 주권과 권리를 침탈당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중등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다. 교육의 기본 권리가 부여되지 못한 상황에서 “現代의 教育制度”는 “資本家에 有利하고 無產者에 不利한 것”³⁰으로 인식되었고, 교육이 사회적 신분 상승이나 계급적 모순을 타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통념이 확대되면서 ‘통신교육’이 대안적 프로그램으로 제시되게 된 것이다. 통신교육을 급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통신교육이라는 ‘준-제도적 계몽 시스템’이 식민지 파시즘 체제 하에서의 ‘입신·출세주의’를 내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다소 사후적 관점에 매몰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통신교육은 3·1운동 이후 일제의 교육 탄압으로 인해 교육 기회와 사회 진출의 길이 상당 부분 통제당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며, 또 “통신교육의 효시”가 되는 조선통신중학관의 통신교재 『중학강의록』 발간이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실용적 목표 외에 “조선에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학교에 드러가지 못하는 소년”에게 “강의록이라도 발행하여 상식을 기르게”³¹ 하자는 취지 역시

30 『동아일보』, 1921.7.26.

31 『동아일보』, 1923.1.22. “朝鮮敎育學會는 제작년 일월에 여러 명사의 발기로 통신 중학강의록 발행을 목척하고 생긴 것인데 그 후 그 회 주간 朴勝英 씨는 여러 가지 곤난을 참고심분투하여 당국의 허가를 어더서 강의록 데이호까지 발간하얏스나 이려는 동안에 만치 못한 박씨의 재산을 전부 경영비로 쓰고 곤난하게 되엿다”고 한다며, 뜻있는 “유지의 참가”를 통해 “얼마간 재력을 변통하여 계속케하였으면 조켓”다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담고 있기 때문이다.

IV. 근대 통신학교 국어교육의 의미와 향후 과제

지금까지 조선통신중학관에서 발행한 『중학강의록』(1호~20호, 1921~1922)을 중심으로 근대 통신학교의 성립과 국어교육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통신학교의 효시라 평가되는 ‘조선통신중학관’은 중학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조선인을 위해 설립된 것이었으며, 통신교재 『중학강의록』은 초등 과정만을 마친 조선인 학생들에게 쉬운 조선어를 통해 중등과정의 학습 내용을 전달하고자 기획된 미디어였다. 해서, 1920년대 초기의 통신학교 국어교육은 식민지 조선인의 교육적 차별 해소를 위해 분투한 역사의 기록이다. 다소 소극적이기는 하더라도 ‘조선어’와 ‘일본어’라는 이중언어 감각을 유지하고 그 감차(感差)를 ‘제재 학습’이 아닌 반이념적인 형식의 ‘문법 탐구’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조선어 교과와 달리 역사나 지리, 그리고 근대 과학적 지(知)의 유통이 일본어 교재의 번역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시대적 한계로 남는다. 왜냐하면 조선교육령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진 통신교육은 식민지의 삶과 구조를 입안하고 재생산하는 ‘입신’의 회로망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입신(立身)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머리’(이론)에만 있는 공부를 ‘몸’(실천)으로 바로 세우는 것, 혹은 스스로의 정신과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부의 여정 자체를 의미한다. 하지만 ‘식민지 근대’ 이후 입신은 사회적인 명예와 부, 그리고 개인의 확고한 지위를 세우는(入身) 과정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공부가 입신(立身)을 위한 방법이기는 하되, 자아의 발견과 성숙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출세와 성공’이라는 어휘와 동량의 감각을 지닌 도구가 되어 버렸다는 뜻이다. 명문대학 진학, 그리고 스펙의 향상, 학벌 시스템의

안정적인 진입과 취업을 향한 문이 그것이다. 과연 이러한 사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나는 과연 이러한 입신의 관념에서 자유로운 것일까.

이와 같이 ‘공부’와 ‘입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이 논문은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원격교육의 성격을 지닌 ‘통신학교 국어교육’에 대한 통사적 관심이다. 그 첫 자리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 이 글에서 다른 1920년대 초기 ‘조선통신중학관’을 중심으로 시작된 통신학교 국어교육의 양상이다. 왜냐하면 식민지 시기의 통신학교는 조선어 문식력의 이입이 완전히 차단되고, 사회적 문식력의 성장 동력과 소통 회로를 잃어버린 조선인들을 ‘입신’시키는 역할을 하는 ‘준-제도적 장치’였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문제 인식은 향후 해방공간과 1950~60년대 두 시기에 대한 연구로 확장될 계획이다. 특히, 식민지 시기 준제도적 사회교육 운동의 성격을 지닌 통신학교 국어교육이 ‘해방-정부 수립-한국전쟁’을 거쳐 완벽하게 ‘입신·출세’를 위한 제도교육의 보조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허나, 이것이 역사적 사료의 발굴과 학술적 글쓰기로 마무리되어서는 곤란하다. 나는 이 공부(연구)가 가난이나 각종 여건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했던 통신학교 학습자들의 공부 의지, 다시 말해 가장 취약한 자리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자 했던 이들의 삶과 무늬를 감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우리의 ‘공부’ 방향과 가치를 다시 묻고 또 함께 나누는 작업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그것이 근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입신(立身)의 제도적 장치인 ‘통신학교 국어교육’의 성립 과정을 바로 묻는 공부가 될 것이라 믿는다.

참고문헌

- 김선배(1996), 『시조문학교육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 민현식 외(2007), 『미래를 여는 국어교육사』 1·2, 서울대출판부.
- 박봉배(1997), 『국어교육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박영기(2009), 『한국 근대 아동문학 교육사』, 한국문화사.
- 박형준(2012a), 「한국 문학교육의 제도화 과정 연구—제1차 교육과정 이전 시기 문학 교재의 변모를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논문.
- _____ (2012b), 「향토학교와 문학교육의 정치성」, 『인문학논총』 30, 경성대 인문학연구소.
- 심선옥(2007), 「1920~1930년대 근대시의 정전화 과정」, 『상허학보』 20, 상허학회, pp. 82-83.
- 우한용(2008), 『한국 근대문학교육사 연구』, 서울대출판부.
- 윤여탁 외(2006), 『국어교육 100년』 1·2, 서울대출판부.
- 윤해동 외(2006), 『근대를 다시 읽는다』, 역사비평사, p. 32.
- 이용백(1975), 『국어교육사연구』, 신구문화사.
- 정재찬(1996), 「현대시 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조선통신중학관 편(1921), 『中學講義錄』 제1-2호, 조선통신중학관.
- _____ (1922), 『中學講義錄』 제3-20호, 조선통신중학관.
- 최현섭(1989), 『한국 소설교육사 연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허재영(2009), 『일제강점기 교과서 정책과 조선어과 교과서』, 도서출판 경진.
- _____ (2012), 「조선어과 교과서의 변천사」, 『조선어독본과 국어문화』, 제이앤씨.

근대 통신학교의 성립과 국어교육

박형준

이 논문은 조선통신중학관에서 발행한 『중학강의록』을 중심으로 근대 통신학교의 성립과 국어교육의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통신학교의 효시라 평가되는 ‘조선통신중학관’은 중등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조선인을 위해 준제도적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통신교육은 제도 학교교육과 달리 세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였다 그것은 첫째, 공간의 제한, 둘째, 시간의 제약, 셋째, 비용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제도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조선인에게 학업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교육 운동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급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진출을 위한 중학과정의 교육을 운영한다는 것과 원격(우편) 교수·학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야학 운동’과는 차이점이 있었다. 물론, 통신학교 국어교육 역시 식민지 교육제도인 조선교육령의 지배를 받았지만, 다소 소극적이기는 하더라도 ‘조선’과 ‘일본’에 대한 이중언어 감각을 유지하고 그 감차(感差)를 ‘교육 제재’가 아닌 반이념적인 형식의 ‘문법 학습’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첫째,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통신학교 국어교육의 특성상 ‘조선어 시수’의 물리적 제한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웠다는 점이다. 둘째, 조선어 교과는 식민지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할 수 있는 읽기 제재 대신, 조선어의 기원과 특질을 이해할 수 있는 문법교육을 중핵화 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조선어의 도구교과적 성격을 인식하고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핵심어 통신학교, 통신교육, 원격교육, 조선통신중학관, 『중학강의록』, 국어교육, 조선어, 일본어

ABSTRACT

The Formation of Modern Correspondence School and National Language Education

Park, Hyung-jun

This paper is, based on Transcript of Middle School Lectures published by Chosen Correspondence Middle School Bureau(朝鮮通信中學館), to explore the foundation of a modern correspondence school and the aspects of national language education. The bureau, regarded as the beginning of correspondence school, played a role of semi-institutional, educational establishment. The correspondence education was useful rather than the institutional education in three terms; unrestricted in space, in time, and cost-reducing. In that Chosen People who were deprived of opportunities of institutional education were endowed with those of learning did it have a useful meaning of society education movement. In particular, it was differentiated from night-school movement on two levels; not so much elementary as governing of middle school course, and distance teaching-learning system for learners who cannot spare a particular time and space. Although the national language education in correspondence school was intervened with Chosen Education Ordinance as part of the colonial education system as well, as passive it was, it is meaningful that the correspondence education maintained a sense of double language between Chosen and Japan, and embodied its difference not as educational material but as anti-ideologically formal grammar learning, which seems to represent three aspects; free from learning times of the national language education, proposing the content of grammar education for understanding the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Chosen language instead of reading materials to internalize colonial ideology, and recognizing Chosen language as a tool subject, then, utilizing it for teaching and learning.

KEYWORDS correspondence school, correspondence education, distance education, Chosen Correspondence Middle School Bureau, Transcript of Middle School Lectures, national language education, Chosen language, Japanese